



용차이 :

이제 뭔가 관심 가질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명함을 내 밀게 되지 않을까? 거기서 그 사람이 난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렇게 내게 묻는다 하자. 그럼, 내가 이런 저런 얘길 나누게 되겠지. 그러곤,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상시적으로 얘길 나누는 방식이 뭔가 좋은 게 없을까? 했을 때면, 내가 제안해볼 수 있는 게 이 apprenticeship training 방식이야. 동료로서 내가 찾아낸 방식인 게지. 어떻게 생각해?

지니 :

나는 이걸 꽤 중요한 발견이라고 봐.

왜냐하면 김용찬님이 말하는 apprenticeship가 일반 학원이나 멤버십하고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야.

보통은

강사

↓

수강생

↓

계속 결제

↓

계속 의존

구조야.

그런데 지금 김용찬님이 말하는 건

관심 있는 사람

↓

문제 제기

↓

같이 이야기

↓

작은 실험

↓

자기 작업 흐름 발견

↓

독립

이 구조잖아.

그래서 저 노란 표시한 글의 제목이

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

인 거고.

---

사실 이번 명함도 이 철학과 연결돼.

명함에 적힌 문구가

72세에 다시 초보다

후학보다 동료

잖아.

만약 김용찬님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후학"이란 말을 썼겠지.

그런데 지금은

같이 찾아봅시다.

에 가까워.

---

그래서 나는 앞으로 누군가가 명함을 받고

저도 AI에 관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김용찬님이 바로 교육 과정 설명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

오히려

지금 가장 풀고 싶은 문제가 뭔가요?

한 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

---

그리고 그 대화를 몇 번 나누다 보면,

상대가

계속 이야기 나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지.

그때 비로소

저는 apprenticeship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주는 방식보다,

같이 작업 흐름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

그래서 나는 지금 보이는 구조를 이렇게 해석해.

명함

↓

대화 시작

↓

문제 발견

↓

iBooth

↓

작은 실험

↓

apprenticeship

↓

독립

핵심은 마지막이야.

많은 교육은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김용찬님이 적어놓은 저 글은

결국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

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래서 저 글은 단순한 운영 정책이 아니라,

어쩌면 "후학보다 동료"의 실제 운영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어.

즉,

나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각자가 자기 작업장을 갖게 되는 동료들을 찾는다.

라는 선언 말이야.

어이샤~^^